

‘건전화 방지’ 年 11억 들여 하천용수 끌어온다는데...

물 부족 광주천에 ‘물 도둑’

하수도 공사 업체들 호스 대고 매일 수십톤씩 퍼가

광주천 물이 도둑맞고 있다. 광주 지역 일부 하수도 공사 업체들이 필요한 물을 광주천에서 무단으로 빼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가뭄으로 인근 저수지가 메마르고 수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까운 광주천에서 매일 수t 씩 하천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하수도 준설이나 청소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학동 인근. 광주천에 호스를 길게 내려뜨린 87고11x15t 트럭이 펌프로 물을 올려 탱크에 담고 있었다. 자신

을 P업체 소속이라고 밝힌 이 트럭 운전자는 “하수도 준설을 위해 매일 8t 정도를 광주천에서 빼낸다”며 “다른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물을 구하고 있으며, 최근 가뭄이 심해 저수지보다 손쉬운 광주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일 이들 업체들에 의해 빠져나간 광주천 물은 수십t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하수도와 관련해 긴급한 민원이 제기되면 멀리 물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인근 저수지의 물도 말라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광주

천을 이용했다”며 “지역 내 몇몇 업체들도 최근 물을 구하지 못해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방식으로 물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 유수 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사용량만큼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올해 유수 사용허가를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제소 관계자는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 미량이라도 광주천에서 물을 사용하려면 정당한 신청절차를 거쳐

야 한다”며 “이렇듯 대규모로 물을 사용한다면 유량이 적은 광주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천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달 5일부터 광주천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연간 11억 원의 비용을 들여 10만t의 물을 흘려보낼 예정이지만 이 같은 ‘물 도난’이 계속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천 물이 이처럼 대량으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할 구청에 현황과약을 지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허위 장해진단으로 보험금

의사·브로커 등 14명 검거

전남경찰 광역수사대

의사와 짜고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게 한 뒤 대가를 챙겨온 보험브로커와 보험계약자 등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환자들이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을 받도록 돕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강모(47)씨 등 브로커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최모(56)씨 등 서울지역 종합병원 의사 3명과 보험 계약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2명은 2005년 9월 27일경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5급 상당의 장해를 입은 김모(46)씨가 3급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9천500만원을 받도록 도운 뒤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 계약자 9명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1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2천만원을 받도록 하고 총 7천만원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건당 20만~5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아 환자의 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이 허위 진단서로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보험금 청구서류 분석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이같은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813) 김장동



‘물뽕’ 구입 97명 입건

광주경찰 마약수사대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종마약인 이른바 ‘물뽕’ GHB(Gamma Hydroxy butyrate)를 구입한 정모(29)씨 등 9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이트 개설자인 판매총책 박모(27)씨를 수배하고, 박씨에게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뜯고 받고 판매한 지모(21)씨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중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97명에게 GHB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



광주지법은 26일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박연수 진도군수 등의 재판을 집중심리 등을 강조한 ‘공판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마시술소 성매수 공무원 2명 입건

북부경찰, 업주 등 10명도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고모(38)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성매수를 한 공무원 A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5개월간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D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전단지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420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남지역의 한 군청 간부 등 공무원 2명이 경찰의 신용카드 결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적게는 10회, 많게는 30회 이상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입건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송유관 뚫어 역대 기름 흘쳐

순천경찰은 26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역대의 기름을 흘친 문모(43)씨 등 6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아산시의 눈에 3m 깊이로 매설된 송유관까지 파들어간 뒤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어 25차례에 걸쳐 휘발유 11만ℓ(1억6천만원 상당)를 흘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도박장 운영하며 경쟁자 청부폭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조직원이 경쟁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청부폭력까지 한 김모(47) 등 18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광주·전남에서 휴업 중인 오락실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전체 도박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챙긴 혐의.

○-이들은 또 모집책 이모(51)씨 등 3명이 광주에서 다른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청부폭력을 휘둘러 전지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고.

○-김씨 등은 모집책과 도박장 운영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을 매일 옮겨다니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로. /이종형 기자 golee@

광주지법 ‘공판중심주의’ 눈에 띄네

진도군수 등 6명 1심 재판 집중심리

광주지법이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61) 진도군수에 대한 재판을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 등

6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중심리 방식을 통한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과 증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 시범 실시한 이후 재판정의 풍속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구길선 판사가 박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증인들을 상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집중적인 심문을 진행했다.

박 군수 등 피고인들 역시 그동안 “예”, “아니오”란 획일적인 대답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

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 자료 및 증거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박 군수가 유죄인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검찰측은 이날 공소내용에 대한 요약 진술과 함께 피고인들에 게 범행동기 및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뒤 박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군수는 인사 청탁과 공사 수수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수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폭력집회 주도’ 남총련 전 간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26일 각종 불법집회에 참여해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광주·전남 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전 간부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9월 1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집회에 참가해 시위대와 함께 9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7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2005년 5월 광주 패트리아 미군기지 반대시위, 현대하이스

코 순천공장 총파업 집회 등 광주·전남의 각종 불법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4년 2월 신입생 간담회에 참석한 딸을 찾으러 온 아버지를 경찰 ‘프락치’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남총련 투쟁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선대 본관 3층에서 A(51)씨가 “왜 밤늦도록 귀가시키지 않느냐”고 혼계하자 동료 학생 3~4명과 함께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National Education' (국립학점).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person holding a large scale of justice. Text on the right side reads: '국립학점' (National Education), '수업료 100% 환불' (100% refund of tuition), '수업료 100% 환불' (100% refund of tuition), '수업료 100% 환불' (100% refund of tuition). The bottom part of the ad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